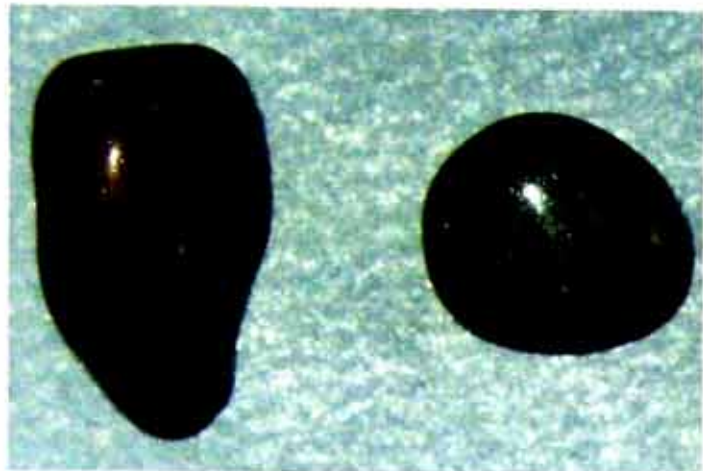


정업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였습니다.
 TEL: 02)433-9544
 FAX: 02)433-9543
 HP: 010)278-1119
 *사업이점포
 *신일교통부 기립 규격으로 제작
 *사업이점포 "A"판
 *전주용 간판 *계시판 *옥간판
 *화재안전 도록스
 *사물화재 방지용 도록스를 제작하여
 *본사 직입 사물론 무료도 드립니다.
 (규격 40cm x 30cm)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황통사 불사리.



◊동도사 성보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사리와 사리장엄구를 둘러보는 불자들.



◊경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기. 높이 16.5cm

1400년전 자장율사가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일반 첫 공개

통도사 성보박물관 7월31일까지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 특별전

50여 불탑의 사리장엄구 '한자리'

'바람은 천년 전의 일을 되풀이한다'는 박재삼 시인의 말을 생각해 보게 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통도사(주지 신하)에서 열리고 있다. 1400여년 전 자장율사가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가 일반인들 속으로 다가가 천년을 넘나드는 바람이 되어 불교의 기쁨을 선사한다.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을 주제로 2일~7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전국의 불탑에서 모셔온 진신사리와 사리장엄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이번 특별전은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기획했다. 황통사, 분황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부처님 진신사리를 비롯하여 익산 왕궁리 석탑 사리구, 불국사 석가탑 사리구를 비롯한 국보 4점과 보물 3점 등 총 60여건 2백 여점에 달하는 유물이 박물관과 사찰, 학교의 협조를 받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한국불교사에 불보살의 전통을 이어온 통도사에서 사리와 사리장엄구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국보4점 등 2백여점 전시

통도사 성보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 들어서면 계절의 상징이었던 사리와 사리를 화려하게 장엄했던 사리장엄구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순금에 불보살들의 옷자락이 가늘고 세밀한 선으로 새겨지고, 수정과 유리가 영롱한 빛을 발하며 뒤편에 새겨진 진리의 공자를 그 안에 품고 오랜 세월을 간직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1996년 4월에 발견된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신기원을 연 것으로 크게 보도된 바 있는 같은사 동탑 사리장엄구가 보존처리를 마치고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사천왕상이 부착된 금동사리 외함, 화려한 장식의 전각형 사리기, 사리병과 금동사천왕상, 금동 승려상을 비롯 섬세하고 수려한 고대 금속 세공의 미를 함축해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사찰에 비장되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었던 사리장엄구들까지 총 망라되어 관련 학계와 문화계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8개월 여 동안의 준비 과정 중 힘든 점도 많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한다는 기쁨이 더욱 컸다"며 "많은 이들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을 통해 자신의 본 성품을 만나는 인연공덕 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가모니 입멸 후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리는 무엇인가? 사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 남겨지는 육신이나 뼈를 뜻하는 범어의 사리(Sarira)에서 온 말이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사리는 일반인이 죽은 후에 남기는 유골과는 달리 참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슬 모양의 결정체로 주로 탑 속에 봉안되어 불상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예배 대상으로 숭상되었다. 특히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하며, 불교경전에는 석가모니가 입멸한 후 화장한 결과 8할 4되의 사리가 나와 8개 나라에 분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석존의 입멸 후 5-6세기까지 부처님을 형상화하지 못한 이른바 무불(無佛)시대에 불교신앙은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사리신앙이 주가 되었다. 그러므로 청정무구한 불국정토의 상징이기도 한 사리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만든 사리구에 보관되어 탑 속에 안치되었다. 사리구란 탑에 봉안되는 사리장엄구를 지칭하는 말로 사리용기와 함께 봉안되는 공양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사리구는 사리용기, 공양소탕, 탑지 등 셋으로 분류되는데, 사리용기는 직접 사리를 봉안했고, 공양소탕은 법사리를 남김없이 탑지는 건탑 연유를 기록한다. 사리장엄의 방법은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러 겹의 용기 속에 사리를 봉안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가장 중심에 사리를 직접 넣어두는 용기는 주로 수정이나 유리병이 사용되며 그 다음 안에서부터 금·은·동·철 혹은 돌로 만든 용기로 겹겹이 사리를 장엄한다. 이러한 사리장엄 방식은 <대열반경>에 부처님의 장례식에 사용되었던 관이 금·은·동·철의 4종으로 된 보관이었다는 기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리용기는 불탑 건립과 불사리 신앙이 인도에서 최고조에 이른 마우리아 왕조 제3대시대인 BC 2~3세기까지 기본형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의 옛 방식에다 우리 전통과 관습을 더하여 독자적인 사리용기를 고안하여 탑에 안치하였다.

4층의 사리장엄구에 싸여서 탑 안에 봉안되어 장구한 세월을 이겨온 사리들, 그 영롱한 사리와 탑은 불자들에게는 최고의 신앙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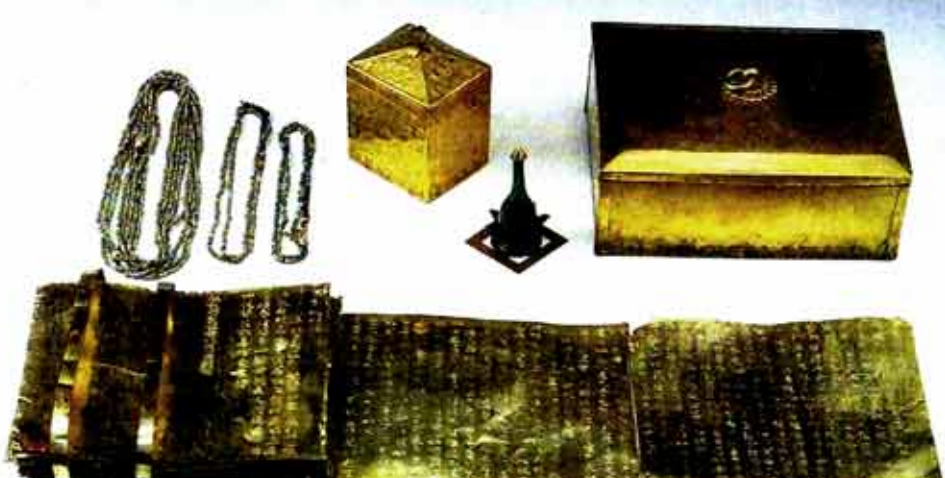
16일 '불사리 신앙' 학술회의

한편 통도사박물관은 16일 10시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을 주제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정중식(동국대박물관장)교수의 '한국의 사리 신앙', 강우방(경주박물관장)교수의 '삼국의 불사리 장엄', 조유정(국립문화재연구소장)박사의 '삼국의 조사와 보존처리' 등과 중국 양홍(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교수의 '한·중 사리장엄구 유형과 관계', 일본의 가오다 사다무(재흥산대)교수의 '한·일 사리장엄구 유형과 관계' 등이 발표된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경주 나원리오층석탑 사리함. 높이 15.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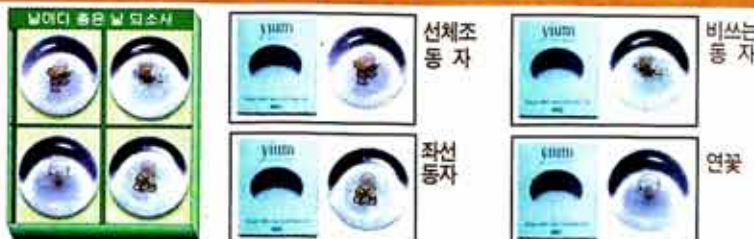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123호)에서 발굴된 사리장엄구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몸 기꾸기, 마음 기꾸기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크업 잔여물까지도 깨끗이 한복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 황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 마사지 효과, 피부노화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생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 4개 1세트 : 10,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용선가격
- 2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500원
- 5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000원

▶ 금비누 (특별상품)



순금은 피부에 접촉하면 은이 은을 염으로 피부의 산성도를 높여 보호력 강화 및 피부층에 화강물 성분 침투가 쉽게 되도록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우고 독소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 순 식물성 한방 투명 비누에 순금 가루를 삽입하여 미용 효과를 더해 줍니다.

- ▶ 1개 당 : 15,000원
- ▶ 100개 이상 : 14,000원

각각의 금비누 포장 상자에 주문자 디자인 스티커 또는 인쇄